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말씀
최후의 만찬과 대사제의 기도

색인

최고 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다 (요한 11,45-56)	4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마태 26,14-16).....	7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마태 26,17-19)	8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 (요한 13,1-15)	9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요한 13,16-20).....	13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마태 26,20-25).....	16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마태 26,26-30).....	22
아버지께 가는 길 (요한 14,1-14).....	25
성령을 약속하시다 (요한 14,15-31).....	30
나는 참포도나무다 (요한 15,1-8)	39
사랑의 계명 (요한 15, 9-17).....	42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 15,18-21)	46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요한 15,26—16,15).....	48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 (요한 16,16-24)	57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25-33)	63
믿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요한 17,20-26)	71

에필로그	74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심 (요한 19,25-27)	76
숨을 거두시다 (요한 19, 28)	77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다 (요한 19,31).....	79
묻히시다 (요한 19, 38-42).....	80

최고 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다 (요한 11,45-56)

그때에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주님은 분열의 원인입니다. 아무도 그분께 무관심한 채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분을 배척합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보는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의회를 소집합니다.

부패한 통치자는 자신의 부당한 명령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손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법적인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에 대한 타고난 인식이 있어서입니다. 악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려는 사람은 그것을 좋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타고난 도덕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식은 영혼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발자국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사도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이 한 것이 아니라, 그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대사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했지만, 그 말은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 사방에 흩어진 하느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 우리를 하느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게 해 줍니다. 곧 삼위일체의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느님과 친교 속에 곧 은총의 상태에서 죽은 세례받은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친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은총의 도움으로 이 친교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우리가 누리는 은총의 삶입니다.

“예수님, 이 진리를 저희에게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마태 26,14-16)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돈 때문이겠습니까? 은전 서른 닢은 밭 한 뼤의 값, 또는 농가에서 120 일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큰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했다가 예수님께 실망했을 것이고 그 실망이 배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도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도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들의

집단에서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다면, 굳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서도 사도들의 집단에서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에게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겸손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이 교훈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십시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마태 26,17-19)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최후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에는 주님과 사도들을 모시는 것이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신 곳이 큰 위층 방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던 방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부엌이나 하인들이 일하는 아래층과는 분리된 방임을 의미합니다. 또 방이 크다는 것은 그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님을 알게 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미사를 드릴 때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그리스도를 초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 (요한 13,1-15)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요한 복음사가는 이 순간을 엄숙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아니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인을 섬기는 하인처럼 사도들을 섬기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몸을, 성체를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성체는 우리 각자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성체는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 자애를 키우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심술이나 번덕을 부리지 않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지만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삶은 참으로 나를 살리는 삶, 생명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분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맡은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살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인간적인 뜻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다른 이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 베드로가 당신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규칙적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시고자 하오니, 제게 당신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걸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행동을 모방하면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을 봉사 정신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전문 지식과 평판,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해하는 데에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요한 13,16-20)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두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몸짓으로 표현하고 싶으셨습니다.

권위를 지닌 주인은 그 권위를 봉사하는 데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인은 자신이 맡은 전체가 잘 돌아가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저마다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두고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을 일컬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재능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판사나 교수 또는 외과 의사가 되려면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노동자가 교수나 의사보다 덜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존엄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더 많은 재능을 지닌 사람은 그 재능을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재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며, 공동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허용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다면 서로 도울 일이 없을 것이며, 우리 삶은 지루할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 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자, 관리자, 사제 같은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옵니다. 그들 역시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분들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환영하여 맞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람, 이 단체 혹은 이 기관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이 사람들에게 또는 이곳에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매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고 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20,35).

봉사한다는 것은 추한 일,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향상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딛고 올라설 디딤돌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넓은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마태 26,20-25)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다가 자리를 뜰 때까지 성체성사를 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체를 모시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를 모실 때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성체를 모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을 화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살아 계십니다.

“주님, 사도들이 주님을 처음으로 받아 모실 때의 그 열정으로 당신을 모시고자 합니다.”

(요한 13,21 L-33.36-38)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 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유롭게 당신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계시며, 사랑으로 자유로이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 내부에서의 배신은 아마 하느님 계획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이 모든 고통과 죄를 구속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배신이 예수님께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훨씬 견디기 힘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놀라워하지는 마십시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쭙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요한의 사랑과 유다의 배신은 큰 대조를 이룹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제자이고 사도였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는 충실한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가운데는 착한 군인도 있고 나쁜 군인도 있습니다. 바리새이 가운데도 회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강도 가운데도 회심한 강도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한 집단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람 개인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단이든 거기에는 회심한 사람도 있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집단이 있고 나쁜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회심해야 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사도 요한처럼 당신께 충실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밤이었다.”라는 표현은 죄와 어두움의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길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 수난하실 때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겐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인내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길 999)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마태 26,26-30)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우 특별합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당신이 다음날 죽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위엄과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자애를 반영합니다.

파스카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해방과 함께 하느님의 백성이 생겨났습니다.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두 사도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어린 양을 가져와 빵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미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 희생을 새롭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미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대신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편 말씀을 낭송하셨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루카 22,15).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을 위해 종으로 처신하면서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저술합니다 (요한 13,1).

우리도 미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미사에 참여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합니다.

파스카 만찬을 들 때는 네 번에 걸쳐 포도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을 들면서 엄숙하고도 단순한 태도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다음 날에 당신의 죽음으로 완수하게 될 그 희생을 예상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당신 자신이 파스카 만찬을 위해 희생되는 그 어린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세 번째 잔을 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네 번째 잔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쓴 포도주가 건네질 것입니다 (마태 27,34).

예수님께서 거행하신 최후의 만찬은 희생이자 동시에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형제를 모으는 새로운 잔치의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

주님의 수난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 (요한 14,1-1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주님의 죽음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그분을 본받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나보다 나의 행복에 더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그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쟁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 너무 많은 것을 내어드리면, 하느님께서 내 자유를 빼앗아가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말입니다. 이런 이들은 다른 사람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혼자 편안하게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요?

사람은 누구나 진리와 생명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얻고 생명을 누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그분의 방식을 우리의 방식이 될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삶과 성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주님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에게서 상황에 대처하는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읽을 때는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본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 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서 우리 각자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의 저자이신 성령님, 제가 복음을 읽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얼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적이,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희망에 대한 확고한 토대가 있습니다. 성체, 교회, 가난한 사람들... 이보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의 현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을 키워줍니다. 농부는 수확을 얻을 희망으로 파종합니다. 선원은 다른 항구에 도착할 희망으로 배를 탑니다. 상인은 돈을 벌려는 희망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거룩하게 되려는 희망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상황과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 사제 생활이든 수도 생활이든 아니면 결혼생활이든 간에, 그 소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크게 의심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바라면서 선한 일에 계속 매진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항구할 수 있는 인내의 은총을 주십시오. 제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약속하시다 (요한 14,15-3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덕과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다리는 걸을 수 있게 하고, 눈은 주변 세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같이, 초자연적인 덕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느님의 참 자녀로서 행동하도록 해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청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 5,22-23).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제자들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 영광은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연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모든 갈망이 충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을 분명하게 마주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마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느님을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느님처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1 코린토 2,9)

하느님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흠으로 빛어지고 유리알처럼 깨지기 쉬운 초라한 내게 온갖 아름다움, 온갖 선, 하느님의 무한한 경이로움이 쏟아질 때…그때 나는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 바오로 사도의 말을 이해합니다. 이 말을 믿을 만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뉴스레터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더 깊이 드러내 주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은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 사랑할수록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이해할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인식이 추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인식할 때 그것의 의미와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가진 것을 나누는 것, 희생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누고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 왜 저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는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고 답변하십니다.

“주님, 왜 저를 택하시어 제게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성 삼위□의 좋은 거처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제 안에 있는 성가신 것들을 빼내어 주십시오. 저는 그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으나 당신을 모시는 데에는 결함이 되는 것들이니, 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결함들을 제게서 빼내어 주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께 청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일 원하시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전례 안에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과 더 가까운 친구로 만들어 줍니다. 그분은 영혼의 달콤한 손님입니다.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면, 왜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합니까?

“성령의 배필이신 성모 마리아님, 제가 하느님의 성전으로 행동하고, 제 영혼이 끊임없이 성령께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제자들에게

인사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Pax vobiscum!’ 이 친교의 인사로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도들은 이 인사말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인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기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함께’라는 우리의 인사는 그 수호천사에게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함께’라고 인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았을 때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루카 1,44) 하고 말했습니다. 성모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함께하시자 그 상대방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인사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습니다. 유혹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평화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비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 유혹과의 싸움에 꼭 필요합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평화를 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호적이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 불화의 종식에 이바지합니다. 참 평화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그들의 기쁨과 슬픔,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지니도록 합니다.

우리의 사도직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우리는 평화와 기쁨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정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험담이나 비판, 불만을 피합시다.

“평화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와 제 가족이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빌어주십시오!”

나는 참포도나무다 (요한 15,1-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주인이 돌보는 포도원으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가지에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신자에게 전달됩니다. 성사들을 통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가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쳐내버리고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성화(聖化)□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희생과 자선은 절대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 곁에 머무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그리고 그들을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친척들을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인도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줍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항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일어나게 해 달라고 청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화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열매는 오늘도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거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라고 하신 예수님, 저는 당신 안에 머무르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사랑의 계명 (요한 15, 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정리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완전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영원히 남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신성하고 무한한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생각을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내가 스승님이 맡겨주시는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협조자이신 성령의 힘을 받아 용감하게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느님의 힘은 절대로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도로 파견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닌 능력으로, 또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받은 은사를 통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좋은 교육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함께 다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미래에 필요한 은혜는 그때 가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소명을 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에 충실한가? □ 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가? □ 주님께서 나의 온 생애에 걸쳐 내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 나는 기꺼이 응답하는가? □

“성령님, 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당신의 빛과 힘을 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 15,18-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은 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는 합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박해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반대자가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세상이 우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하고 교회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되도록 허용하십니까?” 하는 절규의 외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찬찬히 생각해봅시다.

. 어쩌면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확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 어쩌면 박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큰 존중을 받기 때문에, 곧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 어쩌면 박해는 참다운 평화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다운 평화는 단지 외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자신의 결점과 또 믿음의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적 평화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경제적 파탄,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릴

때, 하느님께서서는 자주 우리가 안팎으로 슬픔과 외로움과 반대와 배반과 치욕과 조롱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당신과 닮게, 당신 모습대로 만드시고 싶어서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미치광이로 불리거나 바보로 여겨지는 것까지도 용인하십니다.”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301)

때때로 우리는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클수록 우리에게서 기도의 빛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역설과 모순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자극을 줍니다.

“성모님, 성모님께서 십자가 옆에서 쓰러지지 않고 서 계셨던 것처럼, 저희가 모순 앞에서 침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요한 15,26—16,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상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작은 죄라도 피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선을 행할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통달 (깨달음)의 선물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 줍니다. 지식 (앎)의 선물은 창조된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하느님께 인도하게 해 줍니다. 지혜 (슬기)의 선물은 우리에게 일하면서도 하느님을 찾게 해 줍니다. 의견 (일깨움)의 선물은 우리에게 성인이 되는 쉽고 안전한 길을 택하도록 도와줍니다. 효경 (받들)의 선물은 하느님을 신뢰하며 의탁하게 해 줍니다. 용기 (굳셈)의 선물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경외 (두려워함)의 선물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 줍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하늘에서 당신의 빛을 보내주십시오. 진리와 지혜의 영, 깨달음과 의견의 영, 기쁨과 평화의 영이시여! 저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당신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의도로 사도들을 죽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을 정화하는 도구로 그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말처럼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 주고 박해하면 견디어 내고 중상하면 좋은 말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코린 4,12-13 참조).

사도들은 3 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수난 때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성령님, 제가 하느님을 섬긴다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의를 견디어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은 13 장부터 17 장까지 5 개 장에 걸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성령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사도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슬퍼하는 것은 주님께서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인간적이면서도 거룩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해 지니시는 좋은 감정을, 그분의 좋은 유머를 제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서 함께하고 싶은 모든 선한 사람의 구체적인 화신입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의 나날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 잔치나, 휴가를 그분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사라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아버지께 청하여 보호자이시며 협조자이신 성령을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서로 고유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며, 이제 보호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활동 대상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죄와 심판에 대해, 정의와 거룩함에 대해 올바르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죄의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만이 하느님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이 선택한 행동은 자유로이 한 일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한, 우리의 본성이나 자유 의지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행동은 죄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자유 의지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거부하도록 제안하거나 하느님을 거부한다고 밝히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유의사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도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은 모두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교회의 가르침이 항상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겸손, 자기 부정, 순결, 순종, 세상 것들과의 결별…. 이런 것들은 세상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기가 없고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회사 경영, 다자녀 출산, 부부생활에서의 정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자원하는 독신, 자발적 희생 등을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교리를, 그리스도교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도직은 그리스도교 정신과 그리스도교 교리를 친절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교 정신을 전파하고 교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나 방법,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세 위격이 똑같은 신적 본성을 지닌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아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령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이렇게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 (요한 16,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곧 당신의 죽음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당신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하늘에서 주님을 뵈는 기쁨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슬퍼해야 하는 이유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대단히 일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기쁨입니다. 내적인 평화와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이 나쁘더라도 우리의 노동이 부족하더라도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시각으로 현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당하더라도 결코 내면의 평화와 기쁨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아무도 쳐부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쁨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현세적

복락을 누리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마리아의 자녀임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고해성사를 봐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우울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관점에서 매사를 바라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상 기쁨의 삶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 구원을 받았다는 데서 오는 기쁨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본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 우리 모두 초자연적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싸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여성은 해산할 때 심한 산고를 겪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탄생, 곧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될 때 기쁨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내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태안의 아이에게 양분을 줄 뿐 아니라 목숨을 잃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영적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 가지 기도를 가르치거나 미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지를 주의를 기울여 열정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의 경험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해야 합니다. 책에서 얻은 교훈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벗이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을 바탕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성장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영적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양분을 제공하고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영적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삶 또한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물품 같은 물질적 재화를 나누면 내 것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 통찰과 의견, 미와 사랑 같은 영적 재화를 나누면, 내가 가진 영적 재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싸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 기쁨은 영적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이러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영적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영적 기쁨은 무엇입니까? 언제 그러한 영적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기쁨을 누렸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했는데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청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위해 청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 청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할 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필요한 것을 청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25-33)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 놓고 너희에게 알려 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관해서 드러내 놓고 너희에게 알려 줄 때가 온다.”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찰 (깨달음)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은사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합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세상, 사회, 가족, 교육, 예술, 노동의 세계 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를 지식 (앎)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를 의견 (경륜, 깨달음)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외에도 우리에게서 믿음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성경 연구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청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에 대해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나는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델이십니다. 나의 출발점이며 나의 목적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나의 약점도 아십니다. 내 약점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내게 성인이 되라고 부르실 수 있는지요?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떠올려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세 번째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요한 21,17)

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임을 알기에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치욕을 겪으셨지만, 악의 세력에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을 딛고 부활하심으로써 악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악의 세력에 패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참회와 화해의 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떤 사람들은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거룩하게 되기 위한 싸움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한 싸움은 힘들다는 것을, 패배하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를 향한 길에는 일시적인 패배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패배를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게 희망을 주시고, 패배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나서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요한 17,11 c-19)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일치, 인내, 기쁨 그리고 거룩함을 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청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친교를 이루는 데에 인내하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인내했지만, 유다는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끝까지 충실하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끝까지 충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받은 소명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응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모두가 떠나더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록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지만, 당신 은총으로 마지막까지 충실히 머물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가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창조된 세계와 인류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좋습니다. 둘째, 세상은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의 세상은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고 세속에서 살아가지만, 속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속에 있는 것들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예술, 문화, 정치, 경제, 여행, 스포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그것들을 하느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것들을 정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일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예술을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작가는 문화를 성화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사회를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믿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요한 17,20-26)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치하게 해 달라고 청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를 볼 때나 혹은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치는 회심을 요구하기에 일치 운동에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치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아버지와 누리는 그 영광을 제자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사제의 기도는 아버지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만을 청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제자들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사제의 기도를 이렇게 끝마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뒷받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무기로 성취할 승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이 성인이 될 것임을 보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달콤한 십자가의 못이여! 생명이 시작되는 향기로운 나무여!”

주님은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히셨습니다. 못은 손과 발의 근육과 신경을 못 쓰게 만듭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죄를 얼마나 혐오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고자 주님께서서는 저 치욕적인 십자가형에 동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들은 관대하게 섬기도록 주님께서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지십니다. 수석 사제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기쁨을 누렸던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 곤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고통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며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저야 하는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포용하고 입 맞추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흥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감정을 추스르고 그 흥분된 감정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카 23,42) 이 죄수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주님과 일치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온유하고 동정심이 넘치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면서 주님께 청을 드린 것입니다.

고난은 죽음을 생각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현세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자기 증여는 미사 때마다 새롭게 재현됩니다.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심 (요한 19,25-27)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십자가 옆에는 마리아 성모님과 요한이 서 있습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가 겹쳐지며 떠오릅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은 교회와 교회가 거행하는 성사들의 근원이 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류 구속의 위대한 사업에 당신 아드님과 결합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께서서는 아들 예수님과 끝까지 일치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도 요한처럼, 저도 저의 집에 그리고 제 안에 어머니를 모셔 들이고 싶습니다.”

오후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는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 말씀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마태 27, 46).

숨을 거두시다 (요한 19, 28)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목마르다.”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갈증은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녀는 이전의 그릇된 행실에서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사람들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목말라하는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가 되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큰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 46) 그리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성모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더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싶습니다. 성모님, 제가 당신과 함께 고통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저도 함께 지니고 십자가와 사랑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십자가 길, 제 12 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다 (요한 19,31)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생긴 상처는 또한 시메온이 예언한 것처럼, 마리아의 영혼을 관통하는 상처입니다.

저도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상처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것에서 초탈하고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고...마지막 순간까지 사도가 되라고...심지어 다른 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더라도 불평이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고통을 참아 받으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모님, 당신과 함께 이 수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묻히시다 (요한 19, 38-42)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제자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금요일 저녁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도록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을 받은 사람은 사형수들이 묻히는 무덤에 매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의 행동은 매우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하느님 아들의 몸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참 제자의 모습을 보이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니코데모도 나타나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성모님은 두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들은 시간이 별로 없었으나 예수님 몸을 신심으로 씻고, 향을 피우고, 요셉이 사 온 새 천으로 싸서, 새 무덤에 안치하여 왕다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저의 양팔로 이제 차가워진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시신을, 저의 사랑의 불길로 굳게 껴안고, 저의 보속과 희생으로 시신에서 못을 뽑아내고…저의 깨끗한 생활로 시신을 새 수의로 싼 다음, 살아있는 바위 같은 저의 가슴 안에 시신을 묻사오니, 거기서는 아무도 저한테서 시신을 빼내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 주님, 거기서 쉬시옵소서! 온 세상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모욕한다

하여도…주님,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십자가의 길, 14)

성당 감실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처럼, 무덤에 누워 계실 때처럼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만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과 니코데모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돈과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누워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들의 속죄사업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우리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고행과 통회를 통해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협조자 역할을 하려는 열성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주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되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 (성 호세마리아, 십자가의 길, 14)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다음 날 사도들은 저마다 성모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겁에 질린 사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셨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모시려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마다 성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저는 그분이 매일 제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원합니다.”